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비연계 → 기본 차등 (시제/시제)

① 불편스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하지만 허원은 그렇게 스스로 주의하고 고통을 감내해 냈기 때문에 자신의 비밀을 남 앞에 감쪽같이 숨겨 나갈 수 있었다. 아무도 그의 비밀을 눈치챈 사람이 없었다. 비밀이 탄로 나지 않는 한 그의 일상 생활은 더 이상 불편을 겪을 필요도 없었다. 인체 생리나 해부학 서적 같은 걸 뒤져 봐도 성인의 배꼽은 거의 아무런 기능도 수행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적어도 그의 외모나 바깥 생활은 정상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 점만이라도 무척 다행이었다. 그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② —그것 놔의 배꼽, 안 가지고 있을 어때. 왜개 불편이 러지? 그쯤 체념을 하고 될 수 있으면 배꼽에 관한 일들을 잊어버려 했다. ③ 자신으로부터 배꼽이 사라져 버린 사실을, 그리고 그 때문에 생긴 모든 불편을 잊고/그 배꼽 없는 생활에 스스로 익숙해져 버리기를 바라 마지않았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아무리 일상생활에선 드러나게 불편한 점이 없다 해도 그는 역시 배꼽이 없는 자신에 대해 좀처럼 익숙해질 수가 없었다. 그는 자꾸만 허전해서 견딜 수가 없어지곤 했다. 있느니라 여기고 지낼 때는 것처럼 무심스럽던 일이 그런 식으로 한번 의식의 끈을 건드려 오자 허원의 상념은 잠시도 그 잃어버린 배꼽에서 떠나 있을 수가 없었다.

그는 마침내 회사 출근마져 단념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신통하게도 낯감 버릇이 깨끗이 자취를 감춰 버렸다. 그는 눈만 뜨면 사라져 없어진 배꼽 때문에 기분이 편해졌고, 그러면 그 허망감을 쫓기 위해 배꼽에 관한 끝없는 상념들을 쌓기 시작했다.

(중략)

그리하여 배꼽에 관한 허원의 지식과 사념은 자꾸 더 심오하고 추상적인 것이 되어 갔다. 그에게는 어느덧 그 나름의 독특한 배꼽론 같은 것이 유팔을 지어 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 수록 허원은 더욱더 편해지고, 아무 곳에도 발이 닿아 있는 것 같지 않고, 혼자서 외롭게 허공을 둥둥 떠다니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면 그는 또 거듭 그 허망감을 쫓기 위해 자신의 배꼽론을 완벽하게 발전시켜 나갔다. 마치 그렇게 하여 그는 자신의 사념 속에서 잃어버린 배꼽을 되찾아내고, 그것으로 그 실물을 대신해 어떤 식으로든 자신과 세상 간에 큰 불편이 없도록 화해시키고 그것으로 그 난감스런 허망감을 채우려는 듯이. 그의 배꼽론은 가령 이런 식으로까지 발전되어 있었다.

—우리는 누구나 배꼽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우리들의 어머니로부터 태줄이 끊어지는 순간 이 우주의 한 단자(單子)로서 고독하게 존재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그 태줄의 기억을 잊지 않는다. 우리 영혼은 언제나까지나 그 어머니의 태줄과 이어지려 하고, 또다시 그 어머니의 어머니의 태줄과 이어져 나가면서 우리 존재를 설명하고 근원을 밝혀 나가며, 마침내는 마지막 어머니의 태줄이 이어지는 우리들의 우주와 만나게 된다…… 우리의 배꼽은 우리가 그 마지막 우주와 만나고자 하는 향수의 표상이며 가능성의 상징이며 존재의 비밀로 나아가는 형이상학이다. 그 비밀의 문이다……

그는 어느덧 배꼽에 대해 당당한 일가견을 이룬 배꼽 전문가가 되어 가고 있었다.

④ 어느 해 여름이었다. 하니까 그것은 허원이 자신의 배꼽을 잃어버리고 나서 불편하기 그지없는 세 번째의 여름을 맞고 있을 때였다. 그는 물론 배꼽을 잃어버린 자신에 대해 아직도 완전한 익숙해지질 못하고 있었다. 그의 사념 역시 언제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배꼽에 매달려 거기에서밖에는 영영 더 이상 자유로워질 수가 없었다. 그 대신 허원은 이제 그 자신의 배꼽론에 대해선 매우 확고한 경지에 도달해 있었다.

그런 즈음이었다. 허원은 문득 세상 사람들이 수상척어지기 시작했다. 어느 때부터지는 확실히 알 수 없었지만, 세상 사람들 역시 무슨 이유에선지 이 인간 장기의 한 조그만 흔적에 대해 심상찮은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이다. 배꼽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역시 기왕부터 있어 온 것을 여태까지 서로 모르고 지내 오다가 비로소 어떤 기미를 알아차리게 된 것인지, 혹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관심을 내보이게 할 만한 무슨 우연찮은 계기가 마련되었는지는 확실치가 않았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그런 관심이 시작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도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어쨌든 사실이었다. 주의를 기울여 보니 관심의 정도도 여간이 아니었다. 한두 사람, 한두 곳에서만 나타난 현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일반적인 현상이 되어 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렇듯 배꼽 이야기가 일반화의 기미를 엿보이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이제 그걸 신호로 아무 흥허물 없이 터놓고 지껄이거나 신문, 잡지 같은 데서 진지하게 논의의 대상을 삼기도 하였다. ⑤ 배꼽에 관한 논의가 그렇듯, 갑자기 시중 일반에까지 성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기묘한 현상이었다.

한스(아리화) - 이창준, 「배꼽을 주제로 한 변주곡」 -

28. ㉠~㉤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 수구의 생각을 누가 말하는지 정확한 표현을 나타내어 서술하고 있다. '한스, XX'이 내레이션.
- ㉡ ㉡: 인물의 생각을 서술자가 평가하며 그 심화된 의미를 함축하여 서술하고 있다.
- ㉢ ㉢: 인물의 의식을 인물 자신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서술하고 있다. '한스' 인물(1인) 독백(내레이션).
- ㉣ ㉣: 인물의 상황에 관련된 정보를 분가하여 서술하고 있다.
- ㉤ ㉤: 인물 행동의 진행 과정을 순차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독기하며
내레이션
(서) → 서술
순차적 → 시간
따라
분가
다양한 관점에서 서술

7.12.2 원 → 문맥에 따라!!

원 주조, 생, 시공 파악

급 이념적 차이를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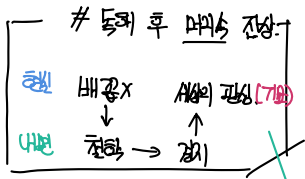
원 더 심해져... 내레이션 다나 다한 개인적 상황. (의)에 의해 시의적 확대가 있을 것.

급 결과 자체... 애 외이념?

급 변화 없이 상황 유지 중~

원 변화가 없음 (의)에 예외란 기본 → 시의!

두려움, 이념, 28번 해결되어 있어야 함.



<보기> 판시 된 상황

「자살명」은 ~.

vs ~가면 ~는 ~
~사어 xx은 ~

유용할 → 리안 장에
그 특이 되어
안은 수 있음.

무관 해당 장에 그 특이
드림.

홀수형

배품X → Rx (Return 의 R.)

국어 영역

29. 「비밀」의 서사적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악의 판단

- ① 자신의 신념을 인물이 돌이켜 본 ~~점~~으로, 새로운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는 주제를 형성한다. 배품X → 점으로
- ② ~~엄밀한~~ 인간관계를 인물이 성찰하는 전환점으로, 갈등으로 인한 위기감을 완화한다. 사회 상황 X 그와 내면에 관련..
- ③ ~~실상적이지 않은~~ 경험을 인물이 인식한다는 표지로, 인물의 심리적 ~~동기~~를 부른다. 배품X → (사건) → (환상) → (환상) → (환상) → (환상)
- ④ ~~상징적~~ 이해관계를 인물이 조정하는 단서로, 심화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한다.
- ⑤ ~~기성적~~ 질서에 인물이 저항한다는 신호로, 돌발적 사건의 발생을 알린다.

가해 의.

R: Return
(지문으로 등장)

RO → 사실 관계 재확인.

현 상황 → 배품X → 다음.
→ 사회적 배품

30. 「허원」을 중심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허원」은 「실물」과 관련하여 시작된 「사념」을 통해 「주제」의 의미를 발견해 간다. 점.
- ② 「허원」은 「실물」이 몸에서 큰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일단」 안도감을 느끼게 된다. → 224 허원.
- ③ 「허원」은 「사념」을 방편으로/삼아 자신의 현재 상태에 대해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점.
- ④ 「허원」은 「실상잡은 관심」의 원인에 대해 궁금해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내면 → 324
- ⑤ 「허원」은 「실물」에 대한 인식을 「세상 사람들」과 ~~무관~~하게 되면서, 그간 이어 온 「사념」을 더 이상 지속하지 않게 된다. ~~무관~~.

R → 기문 → "기문" → "기문" → "기문"

3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St

「배품을 주제로 한 번주곡」은 주인공이 배품을 잃어버렸다는 허구적 설정으로 시작하여, 이후 배품을 둘러싼 회화적 에피소드들이 이어진다. 주인공은 오래 있어야 할 것이 없어 불편한 생활을 이어 가던 중/배품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배품에 관련된 개인적 상황은 물론 인간 존재와 사회 상황에 대한 심층적 의미의 탐색이 이루어진다.

확정적!

- ① 「의식의 끈」이 「건드려」짐으로써/주인공이 비정상적 문제 상황에 지속적으로 주목하게 된 것이었군.
- ② 「회사 출근」을 포기하게 되고 「늦잠 버릇」이 사라진 상황임/주인공의 일상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겠군.
- ③ 「배품」을 「땃줄」에 연관하여 이해하는 것은 개인에 관련된 생각을 「우주와 만나」는 「심오하고 추상적인」 생각으로 확장하는 실마리가 된다고 할 수 있겠군. 지문 → 개편 → 우주.
- ④ 「그의 사념」이 도달한 「배품론」의 「확고한 경지」는 사소한 것의 심층적 의미를 탐색할 때 이를 수 있으므로, 그 사소한 것에 없애이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실현이 가능해지겠군.
- ⑤ 「기묘한 현상」은 「배품 이야기」가 「일반화」되는 상황이 뜻밖이지만 「사실」로 나타나는 현상을 두고 일컬은 말이라고 할 수 있겠군.

배품X 이 집중해서
시각됨..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연계 → 개! !

어저 어저 저기 가는 저 사람아
네 행색을 보아 하니 군사 도망 네로구나
허리 위로 볼작시면 배적삼이 깃만 남고
허리 아래 굽어보니 허 잠방이 노닥노닥
곱장 할미 앞에 가고 천태발이 뒤에 간다
십 리 길을 하루 가니 몇 리 가서 없어지리
내 고을의 양반 사람 타도 타관 옮겨 실면
친하 되기 상사여든 본토 군정(軍丁) 싫다 하고
자네 또한 도망하면 일국 일토(一土) 한 인심에
근본 숨겨 살려 한들 어대 ~~한~~들 면할순가
차라리 네 살던 곳에 아무렇게나 뿌리박혀
칠팔월애 ①인삼 캐고 구시월애 돈피 잡아
공채 신역 같은 후에 그 나머지 두었다가
함흥 부청 흥원 장사 돌아들어 잠매할 때
후한 값에 팔아 내어 살기 좋은 넓은 곳에
가사 전토(家畝田土) 다시 사고 살림살이 장만하여
부모처자 보전하고 새 즐거움 누리려무나

4th

말은 관계?
대답 X: 말과 방

기문 → 개

R

어와 생원인지 초관인지
 그대 말씀 그만두고 이내 말씀 들어 보소
 이 내 또한 갑민(甲民)*이라 이 땅에서 생장하니 이때 일을
 모를쏘나

우리 조상 남쪽 양반 진사 급제 계속하여
 금장 옥패 빗기 차고 시종신을 다니다가
 시기인의 참소 입어 변방으로 쫓겨 와서
 국내 변방 이 땅에서 칠팔 대를 살아오니
 조상 덕에 하는 일이 읍중 구실 첫째로다
 들어가면 좌우 별감 나가서는 풍헌 감관
 유사 장의 체지 나면 '체헌' 보아 사양터니
 애슬프다 내 시절에 원수인의 모해로써
 군사 강정 되던 말가 내 한 몸이 혈어 나니
 좌우전후 수다 일가 차차 충군(充軍) 되것고야
 조상 제사 이내 몸은 하릴없이 매여 있고
 시름없는 친족들은 자취 없이 도망하고
 여러 사람 모든 신역 내 한 몸에 모두 무니
 한 몸 신역 삼 냥 오 전 돈피 두 장 의법이라
 열두 사람 없는 구실 합쳐 보면 사십육 냥
 해마다 말아 무니 석승*인들 당할쏘나

* 돈피: 담비 가죽.
 * 갑민: 갑산의 백성.
 * 석승: 중국 진나라 때의 부자.

(나)
 녹양방초 언덕에 소 먹이는 야회들
 앞내 고기 뒷내 고기를 다 몽땅 잡아내 다래끼*에 넣어
 주거든 네 소 궁둥이에 얹어다가 주렴
 우리도 서주(西州)*에 일이 많아 바빠 가는 길이매 가 전할동
 말동 하여만
 * 다래끼: 물고기나 작은 물건 등을 넣는 바구니.
 * 서주: 서쪽 발.

32.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배우 표현으로 의연을 묘사하여 대상의 위치를 드러낸다.
- ㉡ 행위의 실행을 가정하여 부정적 전망을 제시한다.
- ㉢ 의연의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의 행적에 대해 의심한다.
- ㉣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여 안락된 처지를 보여 준다.
- ㉤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여 감당하기 힘든 현실을 드러낸다.

32 문제 (가) 두께

→ 33의 ㉠ 파악 위해 (나) 두께

33.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은 ㉠을 언급하는 화자가 이주해 가다 땅에서 재배할 약재이다.
- ㉡ ㉡은 ㉡을 언급하는 화자가 말을 건네는 상대에게 노동의 보상으로 주는 보상이다.
- ㉢ ㉠과 ㉡은 모두, 각각을 언급하는 화자가 목적을 목적으로 구하려는 물품이다.
- ㉣ ㉠과 ㉡은 모두, 각각을 언급하는 화자가 획득하려면 상대의 도움이 필요한 대상이다.
- ㉤ ㉠과 ㉡은 모두, 각각을 언급하는 화자가 보기에 상대가 행위하는 행위의 대상이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조선 후기의 가사나 사설시조에서는 입장이 다른 발화자가 등장하는 대화체를 사용해 작중 상황을 극의 한 장면처럼 만들기도 한다. 대화를 통해 사실성을 추구하는 작품의 경우, 구체적 소재와 다각적인 내용으로 그 시대 삶의 모습을 보여 준다. 대화를 통해 사회성을 보이는 작품의 경우, 대화가 논쟁, 의견 불일치 등 의외의 상황으로 전개되면서 재미가 생겨나며, 때로 등장하는 불완전한 표현은 이러한 작품이 작가보다 대화의 전개 양상에 주목함을 보여 준다.

- ㉠ (가)의 '그대'가 '자네'의 선택과 다른 권유를 함으로써 '자네'가 풀어낸 시련을, 당시 갑산 백성이 겪었을 직한 고통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노미적 태도.
- ㉡ (가)의 '이내' 말씀은 집안의 내력과 사회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사회의 부조리를 해결하지는 않는 입장으로, '그대' 말씀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 ㉢ (나)는 선행하는 화자의 요청에 대해 '우리'가 선행하는 화자의 기대에 어긋난 대답을 하면서 대화가 의외의 상황으로 펼쳐 지는군.
- ㉣ (나)의 선행하는 화자가 '고기'를 누구에게 주라고 하는지 명시하지 않아 불완전한 표현이 된 것은 이 작품이 내용보다 대화의 전개 양상에 주목한다는 것을 드러내는군.
- ㉤ (가)의 '그대'는 길 가는 '자네'를, (나)의 선행하는 화자는 소 먹이는 '야회들'을 불러 말을 건네고 있어 작품의 상황이 극 중 장면처럼 보이는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시오.